

帝釋巨里 巫服의 象徵性에 관한 연구

김 은 정 · 김 용 서*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Symbolic Significance of the Jaesuk-kori Shaman's Custom

Eun-Jung Kim · Yong-Seo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Doctoral cours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Professor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Jaesuk-koli an important part of the 12 shamanistic rituals, is an accepted buddhist monk's costume.

In this paper, the Jaesuk-kori costume and its meanings are studied. The ornaments of shaman's costume differ somewhat from region among individual shamans, but the symbolic meanings are fairly similar.

The significance of Jaesuk-kori shaman's costume are as follows:

First, a Buddhist monk's costume is accepted in the Jaesuk-kori ritual costume.

Second, a shaman wears Jangsam(long-sleeved buddhist robe)and Kasa(surplice) in the Jaesuk-kori rituals.

Third, the ornament of Sipjangsang objects symbolizes search for earthly happiness while the lotus flower embroidered on the costume, depicts purity in the heaven world.

Fourth, five colors in the Jaesuk-kori costume represent Yin and Yang of universal harmony.

Jesuk-kori ritual costumes signify that traditional shamanism was accepted and absorbed into Buddhist rituals system.

Key Words : Jaesuk-kori (제석거리), shaman's costume(무복), Jangsam(장삼), Kasa(가사).

I. 머리말

한국의 巫俗은 단순한 원시종교가 아니며 고대의 한국종교가 殘留繼承된 것으로 현대의 문화 속에서 민간신앙의 형태로 존재하는 종교이다. 무속은 원

시 종교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종교로서의 모든 요소를 구비하고 있어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종교로서 민간 속에 뿌리깊이 파고들어 폭넓은 기반을 갖고 있다. 따라서 巫俗은 한국의 宗敎學, 民俗學, 歷史學, 文學 등을 연구하는 학문에 있어 매

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巫俗에 관한 연구는 종교 및 민속학적인 면에서 널리 다루어지고 있으나, 복식사 측면에서 巫俗과 타종교 복식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무복이 일반복식과는 달리 비종교적이고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과 무당이 죽으면 땅에 묻거나 태워버리므로 유품이 남겨져 있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연구가 되지를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巫服에는 불교적 요소가 적지 않게 개입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帝釋巨里 중 長衫과 袢裟, 고깔을 착용하여 佛教와의 습합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굿거리 중 帝釋巨里는 天神이나 山神처럼 부처님이나 제석님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믿어 신앙되었다. 조선시대 후기 《巫堂來歷》¹⁾ 帝釋巨里의 그림을 보면 巫堂이 들고 있는 巫具은 佛具이며 각 굿거리마다 神을 상징하는 巫服이 다르다.²⁾

巫俗에는 수많은 神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어느 巫儀에서나 공통으로 독립된 祭次를 확보하고 있는 神들이 존재한다. 이는 성주, 조왕, 조상, 제석, 대감, 말명, 시왕, 삼신, 군웅 등이며 祭儀의 성격에 따라 지역이나 굿을 행하는 무당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³⁾

본 연구는 시대의 변천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降神巫·世襲巫에서 꾸준히 행해지는 帝釋巨里 굿의 복식역할과 불교와의 습합 과정을 연결하여 形態, 色相, 文樣 등 巫服에 나타난 象徵性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범위는 현재 진행하는 巫服의 지역성, 굿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석거리 巫服 형태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선행 연구된 자료를 이용한 문헌조사와 실제 행해진 굿거리⁴⁾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帝釋巨里 巫服을 품목별로 분석하였다.

II. 巫俗과 帝釋巨里

1. 巫俗

巫俗이란 대체로 神과 인간이 교통하는 습속을 말한다. 신과 인간의 중간 위치에서 인간의 고난을 神에게 의지하여 해결해 주고 神의 의지를 인간에

게 전달하는 자를 巫라 하며, 巫들이 주도하는 신앙 습속을 巫俗이라 정의할 수 있다.⁵⁾

巫俗의 神觀은 다신적 자연신관으로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물체에 위대한 精靈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 天地, 山水, 水, 巖石 등의 자연물도 모두 신성시되었다. 신양대상은 자연신을 제외하고도 역사의 영웅, 곧 단군을 비롯한 신라, 고려, 조선조의 국왕과 김유신, 최영, 임경업, 남이 장군 등 용장을 신으로 숭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민간인들은 민족 영웅에 대한 역사 의식을 갖게 되고 그들의 업적으로 인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민족적 궁지를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영웅 신을 모신 神堂의 洞神祭는 무속적 종교 의식을 통해 주민들의 집단적 소속감과 지역 공동체적인 심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⁶⁾

또한 巫俗이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역할은 불안의 해소와 더불어 삶의 희망과 의미를 부여하는 중대한 宗教的 기능을 해 왔다. 佛教를 비롯한 儒教, 道教 등이 삼국시대부터 계속 들어 왔으나, 별개의 종교적 차원에서 巫俗은 민간생활의 유일한 산 종교로 서민의 의식 구조에 합치되는 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

굿의 종류와 순서는 하나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이 합쳐 하나의 굿을 형성한다. 굿은 각 장을 巨里라 하고 규모에 따라 十二巨里⁷⁾ 二十四巨里⁸⁾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十二巨里이다. 각 巨里는 특정한 神靈을 불러 모시고 각 神에 따라 巫服이나 巫具를 달리 사용한다.⁹⁾ 十二巨리는 굿마다 순서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굿에 따라 순서를 각각 달리하지만 부정거리에서 시작하여 뒷전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굿의 형태이다. 특히 帝釋巨里는 瘡福을 비는 巨里로 굿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佛教의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는 巨里이다.

2. 帝釋巨里

帝釋巨里는 瘡福을 비는 巨里이다. 여기에서 帝釋은 도교적 의미인 칠성이나 자손의 수호신, 연명 장수를 지배하는 天神이며, 佛教의 三十三天의 天

主로 가능한 사람을 도와 재복을 주는 神이다.¹⁰⁾ 제석은 단군 성조로 三神帝釋이라고도 하며 高句麗山上王의 아들이 없어 三神에게 빌어 꿈에서 만나보고 貴子를 낳았는데 후에 아들 낳기를 발원하면서 습속이 되었다¹¹⁾고 한다.

또한 帝釋神은 主穀神이라고도 한다. 巫歌에서는 三佛帝釋이라 칭하여 扇面에 세 佛像을 그리고 女巫가 노래하면서 흥양을 권하는데 이것을 제석거리라 한다.¹²⁾ 財物神으로서 帝釋은 福德신과도 무관하지 않다. 帝釋信仰은 본래 國祖神 신앙이었으나 佛教가 들어온 후 궁중에서 대치 신격으로 받아들여 봉안했고 다시 寺刹에서 융합된 帝釋信仰을 거꾸로 받아들여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¹³⁾ 帝釋巨里에서 神의 象徵인 중의 신분을 어원적으로 따져 올라가면 제정일치 시대의 신권통치자 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중의 신분은 佛教의 僧侶만을 의미하고 이는 帝釋巫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佛教와 巫俗의 습합에서 빚어진 현상으로 巫俗의 원리와 불교가 융합하는 가운데 神職者에 대한 凡稱으로 중이 쓰였거나 巫堂의 경우 그 의미가 도태되어 佛僧에 한하여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¹⁴⁾

제석거리에서 巫女가 고깔을 쓰고 長衫을 입으며念珠를 걸고 굿을 하는 것은 佛教가 전래된 뒤에 巫俗의 生產神이 佛教의 영향을 받아 巫服과 巫具 등에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佛教에서는 풍요와 多產을 관장하는 神에 대한 신앙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巫俗은 굿으로 巫神에게 제의를 올리면서, 절에 가서는 불공도 드려 巫神과 佛教의 신격들을 전통적인 巫俗 속으로 영입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¹⁵⁾

3. 巫俗과 佛教 융합의 帝釋巨里

한국의 巫俗은 수 천년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순응하면서 풍토에 맞도록 변모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그리하여 儒教, 道教, 佛教의 종교사상을 수용하고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기질에 부응하며 일반 대중의 信仰으로서 기반을 마련하였다.

巫俗과 佛教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마찰 없이

융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근원적인 종교적 공통 요소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종교적 기반 위에서 이차적인 상호 교류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佛教가 한국의 巫俗이나 민간 신앙적 풍토 위에 전래되고 이러한 종교적 풍토 속에서 살아온 서민층을 대상으로 포교되었기 때문이다. 즉 서민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巫俗의 요소 등이 佛教 속으로 이식되어 간 것이다. 佛教는 巫俗을 통해 민간 층으로 폭넓게 파고 들어가 巫俗을 통한 토착화의 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巫俗과 佛教는 상호 교류와 융화의 과정에서 재래의 전통 문화나 민간신앙에 상호 절충하고 융합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토착화하였으며 한국 문화 사상의 종교적 主脈을 이루어왔다. 佛教와 巫俗은 각기 神觀, 祭衣, 司祭, 宗教의 교류를 통해 상호 수수 관계가 이루어져 각기 변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佛教가 한국적 종교의 토양 위에서 포교되어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전통적인 巫俗 내지 民間信仰의 요소가 佛教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佛教와 巫俗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巫俗 쪽에서 다시 佛教의 종교적 위력을 융화했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러한 巫俗과 佛教 융합의 근거로 굿거리 중 帝釋巨里에 나타나는 巫服은 불교복식인 長衫, 裂裟, 고깔, 巫具 등이다. 그래서 帝釋巨里란 무당의 굿 가운데서 가장 불교적인 요소가 강한 巨里라고 할 수 있다.

III. 帝釋巨里의 巫服構成

제석거리의 무복 구성은 불교와 습합 과정에서 고려시대 팔관회나, 불교의식인 영산재 복식과 연관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영산재 승복의 구성과 현대 제석거리에 나타난 巫服 구성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영산재 복식에 나타난 僧服

불교복식 또한 종파나 시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있다. 불교의식인 영산재 복식 형태를 보면 長衫은 直領校任形으로 안쪽 옆 허리에 안고름으로 매

어 입게 되어있고 袖口와 겨드랑이 밑 부분은 터져 있다. 어깨에는 어깨바대를 덧대고 겨드랑이에는 삼각무를 덧달아 기능적인 면과 실용성을 고려했다. 실측치수는 총 길이 135.4cm, 화장 103cm인 소매로 길고 넓은 두루마기 형태이다.

袈裟는 25條로 크기는 가로 256cm, 폭 84cm로 되어 있으며, 가사 네 귀퉁이에는 불 보살을 옹호하는 뜻의 사천왕이 가로, 세로 3cm의 흰색 천 바탕에 검정색 또는 파란색으로 수놓아져 있다. 袈裟에는 黃色, 青色, 紅色, 綠色의 領子가 붙어 있고 오른쪽 부분에서는 겹쳐서 붙이거나 왼쪽에서는 약간의 사이를 떼어놓기도 한다.

고깔은 서산 休靜이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감로탱화 도설 가운데 의식승은 누런색의 고깔에 술을 달았으며 삼각고깔을 쓰고 있다. 고깔을 쓰는 것은 불교적 해석에 의한 것으로 부처님을 머리 위에 모신다는 의미를 갖게 되어 고깔의 위로 올라온 맨 끝 부분에 佛僧이나 붉은 원을 그리게 되었다.¹⁷⁾ 고깔의 높이는 46.8cm 폭 59.6cm이며 고깔의 전체에는 9개의 술이 달려있으며 青色, 黃色, 紅色 삼 색실을 꼬아 둘렀다.

<표 1> 굿거리에 따른 帝釋巨里 巫服

내용 종류	만구대택굿(우옥주) < 무形문화재34호 >	대동굿(김금화) <무형문화재 82호>	셋김굿(이상조)
長衫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길이 117cm, 폭 63.5cm 진동선에 22cm 트임 앞여밈은 매듭단추 백색, 소재는 진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길이 137cm, 폭 55cm 진동선에 23.5cm트임 앞여밈은 매듭단추 백색, 소재는 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길이 126cm, 폭 60cm 반소매 형태 앞여밈은 고름 백색, 소재는 고사
袈裟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길이 124cm, 폭 12cm 녹색에 연꽃 자수 홍색에 연꽃 자수 소재는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길이 142cm, 폭 17.5cm 홍색에 연꽃 자수 홍색에 십장생 자수 소재는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길이 140cm, 폭 8cm 녹색에 문양 없음 홍색에 문양 없음 소재는 공단
快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길이 115cm, 폭 76cm 직령깃에 옆, 뒤가 터져 있고 무가 달림 남색 소재는 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길이 115cm, 폭 72cm 깃부분에 잣물림, 옆과 뒤가 터져있음 남색(안감 홍색) 소재는 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지 않음
帶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 34.5cm, 세로 17cm 중심에 봉황문양 자수 홍색, 짙은 초록 소재는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 45cm, 세로 14.5cm 중심부분에 연꽃과 오리 문양을 수놓았음 적색과 남색 소재는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삼과 같은 소재로 리본처럼 묶어 뒤로 내려뜨림

2. 현대 굿거리에 따른 제석거리 巫服

굿에서 帝釋巨里 의미는 시대가 지나도 변함이 없으나, 巫服 형태와 구성은 변화되어 가고 있다. 현존하는 굿의 종류와 무복의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제석거리 巫服에 나타난 형태적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현대 굿거리에서 제석거리 무복의 치수는 < 표 1>에 의하면 무당의 신체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형태나 색상에는 큰 변화가 없고 반면 문양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불교 복식에서 볼 수 있는 快子는 만구대택굿¹⁸⁾이나 대동굿¹⁹⁾에서 長衫의 받침 옷으로 입고 있다. 이는 무복의 전통성이 기보다는 굿을 행하는 절차에서 각자 무당의 개성에 따른 표현인 것 같다.

長衫은 直領으로 걸깃과 안깃이 같은 치수로 달려 있고 좌우가 같다. 여기에 옷고름보다는 매듭단추를 이용하여 입고 벗기 편하도록 실용성을 나타내어 앞여밈 부분에 두 개의 매듭단추를 두었다. 소매는 廣袖이며 진동 선에 22cm의 아구지를 내어 부처님이 나왔다는 표시로²⁰⁾ 당아지 라고 하나, 長衫뿐만 아니라 다른 굿거리 무복에도 같은 형태를 찾

아볼 수 있어 확실한 定說은 아닌 것 같다. 色相은 白色으로 하늘을 뜻하고 마음을 비우는 암시가 담겨 있으며, 소재는 갑사나 고사이다.

흔히 帝釋巨里에서는 고깔과 裳裟, 念珠와 함께 產生, 農神께 酒肉이 없는 상차림을 하는데, 신성하고 정결한 느낌을 위해 장식이 없는 白色 옷을 입은 것 같다. 전체적으로 절대 권위의 상징을 위해 巫服의 품은 풍성하고 소매는 廣袖이며 웃길이는 길게 나타나 있다.

袈裟는 長衫 위에 엇갈려 두르고 다시 가슴위로 띠를 매어 긴 念珠를 裳裟처럼 엇갈린 방향으로 걸고 부채와 巫具를 함께 한다. 소재는 공단을 썼으며, 색상은 적색과 녹색, 남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가사의 문양은 巫堂에 따라 연꽃이나 십장생 등



[그림 1] 개화기 제석거리무복
(한국의 무속 p.124)



[그림 3] 우옥주 만구대택굿 제석거리
(1981년도 굿거리 중 현장사진)

으로 수놓았다. 또한 흰색 장삼은 축술적인 기원과 불교 상징인 연꽃을 나타냄으로 불교적인 색채를 내포하고 있다.

快子는 전복 또는 담호라고도 하는데 소매와 셀이 없다. 옆선이 양쪽으로 터져있고 뒷길 중심선에서부터 밑단까지와 앞의 목 여밈선부터 밑단까지 트여있으며 깃 부분은 금박을 하거나 수를 놓았다. 앞여밈은 매듭단추로 장삼 속에 입기 편리하도록 되어있고 소재는 갑사로 남색이다. 현재 실제로 행하는 만구대택굿²¹⁾ 제석거리에서는 장삼 속에 快子를 입는다.

고깔은 고기머리(악관)라는 설이 있는데 巫佛이 습합된 불법수호신으로서 의미를 가진 것 같다. 고깔의 크기는 가로58cm, 높이28cm인 삼각형의 형태



[그림 2] 김금화 대동굿 제석거리
(1999년 굿거리중 현장사진)



[그림 4] 이상조 셋김굿 제석거리
(1999년 굿거리중 현장사진)

이다. 고깔은 원래 僧의 예복에 쓰는 모자로 장삼, 가사, 염주 등과 함께 一襲으로 쓰는데 제석거리에서 이러한 복장을 한 것은 불교와 무속의 혼합된 양상이라 볼 수 있다. 우옥주의 만구대택굿인 경우 종이 고깔은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삼불 제석 전에 올려놓은 것이다.

帶는 만구대택굿이나 대동굿에서 셋김굿과는 달리 흥배처럼 가슴 가운데 가로34.5cm, 세로17cm 帶를 매는데 양쪽에 홍색 띠를 대어 뒤로 리본처럼 묶게 되어 있다. 紅帶는 봉황문양이 수놓아져 있다. 대동굿에서는 세로17.5cm, 길이142cm로 양쪽 끝과 중심에 연꽃을 수놓은 홍색 공단이다. 셋김굿에 볼 수 있는 帶에는 문양을 하지 않고 장삼과 같은 소재로 리본처럼 뒤로 묶었다.

바랑(囊)은 무당이 어깨에 매는 돈주머니이다. 제석거리에서는 특이하게 바랑을 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스님의 바랑과 같은 의미인 것 같다. 공단의 소재에 전체적으로 홍색, 초록, 녹색을 사용하여 색상이 화려하고 패치워크를 하였으며 장식 수술이 많이 되어 있다. 이는 무당의 개성에 따라 형태만 유지 할 뿐 현란한 장식으로 현대적 분위기를 주며,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巫具로 (삼불선)부채는 악귀를 누르고 액운을 쫓는 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神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춤을 출기는 것이라 믿고 있어 가무와 함께 신을 모시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巫堂의 부채는 三佛을 그린 것을 사용한다. 부채의 그림은 자기 안쪽으로 들고 그림을 보며 정신 집중하여 巫祭를 행한다. 인물개는 제석이 강림할 때 구름, 비, 눈, 햇빛들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하며 바라는 장구, 꽹, 징 등과 함께 사용한다. 바리를 즐비라 라고 하는데 양쪽 편을 길다란 무명 천으로 연결하고 있다. 염주는 목에 걸어 불교와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IV. 祭釋巨里 巫服의 象徵性

1. 佛僧의 神格化

帝釋巨里 巫服은 굿거리 중 神格化를 위해 長衫

에 白色의 고깔을 쓴 모습으로 자손의 수명 장수나 건강을 지켜주는 불교적인 神의 상징이다. 巫堂은 고깔을 쓰고 白長衫을 입는 위에 紅袈裟를 두른다. 여기에 제금을 치면서 巫歌를 부르고 춤을 추다 帝釋念佛을 외어 佛教의 僧侶를 표방한다. 이때 巫堂은 목에 百八念珠를 걸고 三佛 帝釋을 그린 三佛扇을 사용하기도 한다. 굿에서 부르는 巫歌에도 佛經과念佛이 직접 노래로 불리어진다. 巫堂이念佛을 외고 그 염불의 기능에 의해 亡人을 저승으로 천도시키는²²⁾神의 역할로 불교 승복을 巫服으로 착용하였다.

2. 佛教服飾의 借用

長衫위에 두르는 袈裟는 佛教의 法衣인 袈裟와 長衫을 본 따 帝釋巨里(불사거리)에 借用 한 것이다. 袈裟의 色은 紅色, 綠色, 青色이 사용되고 文樣을 화려하게 金箔으로 하였으며 홍색의 带에는 문양을 화려하게 하여 胸背 형태의 장식을 수놓았다.

3. 呪術的 意味

형상화된 十長生 文樣은 壽福과 자손의 壽命장수를 기원하는 呪術의 의미가 있다. 연꽃의 문양은 윤회설과 관련지어 佛教의 世界觀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帝釋巨里 巫服은 人間觀을 형상화한 시각적 매개체로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의 현실적인 바람과 사회적 價值觀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陰陽 五行色의 標榜

白色은 해의 상징으로 長衫과 고깔의 흰색은 깨끗하고 신성한 색을 상징한다. 紅袈裟과 紅袈裟의 흰색과 붉은색 모두 생명을 상징하는 신성한 색으로 의미가 있다.²³⁾ 快子 藍色은 보통 파랑색으로 창조나 생식, 무성함의 뜻을 갖고 양기 있는 색으로 표현되고 있다. 神格에 맞추어 白長衫에 紅袈裟를

입는 帝釋神은 長衫 자락으로 위엄 있게 형상화하여 연행하는데 白長衫에 붉은 색은 가장 궁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²⁴⁾

V. 맷음말

帝釋巨里 巫服은 궁거리 중에서 佛教와의 습합을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巨里라고 할 수 있다. 巫服의 種類는 佛教의 法衣인 長衫과 裳裟, 帶, 고깔이다. 현대의 궁거리에서는 快子를 장삼의 받침 옷으로 입기도 한다.

형태는 장삼의 경우 폭이 넓고 긴소매가 달린 袍로서 福祿을 빌기 위해 巫祭 중 입는다. 여밈은 승복의 장삼과는 다르게 옷고름 대신 매듭단추가 달려 입고 벗기에 편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현대에 오면서 실용성이 가미된 형태 변화라 할 수 있다. 裳裟는 巫堂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長衫위에 엇갈려 두르고 다시 가슴 위로 띠를 매고 念珠를 전다. 이는 佛僧을 標榜하는 것으로 佛教와 巫俗의 혼합된 양상이라 볼 수 있다.

色彩는 長衫에 나타난 白色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의상의 색으로 여겨 빛, 결백, 신성의 상징을 갖고 있다. 무속에서의 白色은 하늘을 뜻하고 마음을 비우는 신의 뜻을 해아리는 암시가 담겨있다. 裳裟에 나타난 赤色은 陰陽五行에서의 南을 말한다. 이 赤色은 태양, 불, 생명을 상징하며 축술적인 성격이 강하고 온난하여 만물의 무성함을 나타낸다. 快子의 藍色은 보통 파랑 색으로 쓰고 있는데 陰陽五行에서는 束을 말한다. 창조나 생식, 무성함의 뜻을 갖고 있으며 양기 있는 색으로 표현된다. 带의 색채는 원색적인 青色, 白色, 綠色, 黃色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자수를 한다. 帝釋巨里에서 볼 수 있는 색은 백색이 주를 이루고 青色, 紅色, 綠色의 순으로 나타난다.

文樣은 수, 금박, 천 자체에 직조하는 형태로 제석 거리 巫服에 보이는 문양은 그리 많지는 않으나 순수한 장식욕구보다는 신앙적, 축술적인 면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양의 종류는 福祿을 빌며 길상을 위한 十長生문양으로 日, 月, 水, 石, 雲, 松, 不死草, 龜, 鶴, 竹 등이다. 원래 長生은 중국에서 전

래된 신선사상이 한국에 전래되어 원시신앙인 자연 숭배와 巫俗의 영향하에 완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巫服에 표현된 十長生은 襪裟와 胸背처럼 帶에서 대체로 十長生의 형식만 흡내렸을 뿐 열 가지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꽃 문양에서 蓼은 원산지가 인도이며 佛教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巫服의 연꽃문양은 巫俗에 佛教의 來世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帝釋巨里 巫服에 나타난 象徵性은 불교와 巫俗의 습합 과정에서 帝釋巨里의 主神인 제석신을 僧侶로 神格化하여 佛教의 法衣인 長衫과 裳裟를 巫服으로 借用하였다. 중·북부지역 강신무는 각거리마다 화려한 무복을 입으나, 남부지역의 셋김굿은 神服을 상징하는 무복이 거의 도태되어 북부지역의 궁에 비해 단순하다. 셋김굿의 제석거리 경우도 다른 지역의 제석거리에 비해 화려하게 입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巫服은 단순한 궁거리 주도의 행위과정이 아니라 視覺的 매개체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조선시대 후기(1880년대로 추정) 서울지역 큰 궁의 각 거리를 그림으로 그리고 간략하나마 궁거리에 대한 유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특이한 가치를 가지는 책이다. 궁거리 그림은 재물과 무녀를 그린 것인데 사진기가 없던 시대에 궁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가장 실감나게 현장을 기록하였으며, 무녀의 그림을 통해서 무복과 무구를 알 수 있다.
- 2) 중부나 북부 지역 강신무의 경우는 10여종의 무복을 갈아입는다. 남부지역 세습무의 경우는 무복이 2-3종이지만, 호남지역의 단골의 경우는 무복이 퇴화해서 거의 입지 않는다.
- 3) 서대석, 『무속과 민중사상』, 대동문화연구총서Ⅱ,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4, p.497.
- 4) 우우주 〈만구대백굿〉, 김금화〈대동굿〉, 이상조〈셋김굿〉
- 5) 서대석, 앞의 책, p.492.
- 6) 김태곤, 『한국의 무속』, 대원사, 1991, pp.118-119.
- 7) 12거리란 부정거리-제석거리-대거리-호구거리-별성거리-감옹청배-조상거리-만신말명-구릉거리-창부거리-신장거리-뒷전 순이다.
- 8) 24거리란 초 부정거리-산천거리-칠성거리-제석거리-소 대감거리-초 감옹거리-사냥거리-생 타살거리천문

- 거리(풍수거리)-군웅거리-익은 타살거리-성주거리-잔
내림거리-방아거리-영전거리-대감거리-서낭거리-말명
거리-조상거리-신장거리-와룡신장거리-장군거리-광대
거리-터주상영거리-마당거리를 말한다.
- 9) 안명숙 · 김용서, 『한국복식사』, 예학사, 1998, p.165.
- 10) 최길성, 『한국의 무당』, 열화당, 1981, p.74.
- 11) 巫堂來歷 帝釋巨里
 帝釋卽 檀君聖祖 稱曰三神帝釋 小兒十歲之內 或有危
險之也 三神必報護云 故高句麗山上王無子 謂于三神
見夢而生貴子 後生子發願因爲成俗
- 12) 李能和, 『朝鮮巫俗考』, 동문선, 1991, p.215.
- 13) 나경수, 〈제석무가의 연구〉, 전남대석사논문, p.30.
- 14) 나경수, 앞의 책, p.23
- 15) 최길성, 앞의 책, P.79.
- 16) 김태곤, 앞글, pp.189-201.
- 17) 양경애, 〈조선시대 감로탱화에 표현된 복식의 유형분
석과 상징성 연구〉, 숙명여대 석사 논문, 1988, p.36.
- 18) 『큰무당우옥주유품』, 국립민속박물관, p.161, 1995.
- 19) 『전국무속공연대회』, 광주시민회관, 1999년 12월 11
일
- 20) 석가는 태어날 때 마야부인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나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 21) 『한국의 무속』, 국립민속박물관, p.105, 1999.
- 22) 김태곤, 『무속과 영의 세계』, 한울, 1993, pp.189-191.
- 23) 최길성, 『한국의 무당』, 열화당, 1981, pp.187-188.
- 24) 최길성, 『한국무속의 이해』, 예전사, 1994, p.187.